

포천사회 知識人 ④7

경북대학 이정애 교수

老人인구 17% 고령화 따른 보건으로 지원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건강검진 체계 구축해야

“우리나라 보건으로 전달체에서 지역 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보건진료원에 일차진료의 직무를 제외하고는 방문간호사업,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진단 및 자원 개발·활용, 관할 주민에 대한 만성질환성 질환관리, 모자보건(가족계획관리 포함) 및 결핵예방 등 전염병관리, 농어촌지역에 발생하는 통상 질환관리 등 모두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대해 이 교수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회하지 말고 반성하자”를 평소 좌우명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는 이 교수는 일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자는 뜻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도 이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생이전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본인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분이 언짢을 때 이 교수는 드라이브를 한다. 드라이브 코스는 서울 자택에서 경북대학 캠퍼스 까지도.

의정부, 동두천, 노원구보건소 등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특강에 나서고 있는 이 교수는 학교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특강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강을 통해 건강유지는 물론 증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간호학회, 대한간호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이 교수는 한국생활환경학회 이사도 활동중이다.

전공관련 학교행사로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대표적이며 축제기간에 학교 주변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등을 측정하여 건강을 체크해 주기도 한다.

앞으로 연구계획에 대해 이 교수는 지역

주민과 밀착된 건강관리,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주민에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 그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다.

포천신문이 지역의 여론매체로서 지역사회간호학에 대해 보도할 내용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이곳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를 연재했으면 좋겠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책은 물론 치료방법 등을 연재했으면 한다. 특히 포천 시보건소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건강과 연결된 포천시보건소의 활동내용도 상세하게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교수는 또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불법체류자들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성병이다. 이들을 정상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다음은 이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연구논문과 저서목록이다.

- ▶중년전립선암의 음주경험(경겨사회간호학회지, 2002.12)
- ▶학습부진아를 위한 대안 개발(경북연구보고서, 2003.1)
- ▶산업체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개편방안(경북연구보고서, 2004.1)
- ▶일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이 인지하는 강의평가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경북논총, 2004.8)
- ▶산업체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경북연구보고서, 2005.1)
- ▶시대적요구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간호과 중장기 발전계획(경북연구보고서, 2006.1)
- ▶학과사업제안서-사업현황분석을 중심으로-(경북연구보고서, 2006.8)
- ▶산업장 남성 근로자의 건강행위 관련요인(한국생활환경학회지, 2006.12)
- ▶A플러스 보건 의약관계법규(계축문화사, 2005.8)
- ▶신개념 보건교육(계축문화사, 2006.8)
- ▶새로운 학교보건(계축문화사, 2006.8)
- ▶21C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개정3판(신광출판사, 2007.3)
- ▶학교보건실습교육(신광출판사, 2007.3)
- ▶지역사회보건간호 실습교육(신광출판사, 2007.3)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보건소 보건활동 입체적으로 보도 필요

집중인터뷰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운영위원장 양호식

“포천정책협의회 구성 현안문제 역할 분담해야”

포천사회 갈등 해소위해 GNN운동 제안



▶포천지역사회의 특정은

포천은 역사적으로 다수의 명현과 재상을 배출하는 등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형적으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교류가 뒤늦게 이루어진 까닭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군사적으로는 국토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50년 넘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지역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다. 행정적으로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감수하여야 하는 역차별을 당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상공업사회로 변모하면서 농경사회의 윤리도덕이 와해되고 있고, 인구 구성비율도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더 많아졌다. 포천지역사회는 개방화, 다양화의 물결 속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가치를 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

▶포천사회의 배타성에 대하여

어느 사회나 기득권세력이 신진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곤란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소유욕, 독점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배타성의 문제가 포천사회만의 현상은 아닌 것이다. 물론 배타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포천사회에서도 이주해 오신 분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배타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천사회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고,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 존중되고 있으며, 이제는 원주민보다 이주민의 비율이 더 많아졌으므로 배타성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포천사회가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회의 있어서 구심점이라 함은 사회를 지탱하는 특정 세력, 계층을 의미할 수 있고 또한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를 지탱하는 특정 세력, 계층이라는 의미의 구심점은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되고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고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포천사회에도 공동체정신이 존재하고 바로 선비정신이 포천사회의 공동체정신이다. 선비정신은 포천사회가 역사적으로 배출한 명현과 재상의 정신의 결정체이다. 성균관에 모셔진 14분의 대표적인 선비중 가장 훌륭한 선비가 바로 포천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시고 활동하신 면암 최익현 선생이다. 어떤 분은 현대사회에서 선비를 거론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평가할지 모르나 선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비야말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인간형이다. 이런 선비의 정신이 바로 포천의 구심점이고, 선비정신을 계승, 구현하는 것이 포천의 구심점을 확고히 하는 길이다.

▶포천사회의 갈등요인과 해소방안은

사회 갈등은 구성원의 의견과 행동이 상충하는 현상으로서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갈등은 분쟁을 유발하는 사회불안요인으로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긍정적인 측면

도 있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균형과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서 발생하고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는데서 심화된다. 포천사회의 갈등은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 계층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성원간에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행정력이 차이를 해소하는데 투입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포천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GNN(Good Neighbor Network)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구성원간에 ‘좋은 이웃망’을 형성하면 사회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GNN운동의 실천방법으로서 조선시대 향약의 4대 덕목을 권장하고자 한다. 배품과 봉사(서로 권장하고(덕업상관), 서로 잘못을 예방해주고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규율해주고(과실상규), 이웃간에 예의법절을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선양하고(예속상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구휼하는(환난상휼) 노력을 힘써 행하면 이웃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포천사회도 아름답고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포천지역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은

사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소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므로 포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포천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교육문제, 일자리창출문제, 의료문제를 들고 싶다. 일자리가 턱나고, 자녀교육을 편안하게 시킬 수 있고, 의료서비스가 고급인 지역은 살기좋은 지역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포천의 실정은 아직 미흡하다.

교육문제의 본질은 고등교육의 공급이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포천의 고등교육이 수요자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적지 않은 시민이 포천을 떠나 의정부로, 서울로 이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직장을 포천에 두고 있으며 출퇴근을 하느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포천의 교육문제가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교육재원을 늘리고 우수교사를 유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속소를 마련해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천에는 유휴인력이 많이 있다. 농업이 위축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유휴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공업인력에 편입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문교육 뿐만 아니라 공업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인력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은

리더(LEADER)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Listen),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Explain), 지원을 하고(Assist), 토의를 하여 결정하고(Discuss, Decide), 평가를 하고(Evaluate), 대응을 하고 책임을 지는(Respond) 사람이다. 오피니언 리더도 위와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포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각자 직분에 충실하고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포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포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적인 만남을 갖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분담을 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전국 꽃 배달 서비스

신속배달 **꽃** 아남플라워 http://www.anamflower.co.kr

<p>의미있는 축하의 마음 생일/기념일</p> 	<p>사업의 번창을 기원 개업/이전</p> 	<p>소중한 당신에 내 운명 사랑의 고백</p> 	<p>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취임</p> 	<p>건강과 쾌유를 빕니다 출산/병문안</p> 	<p>이사·새집 마련 축하 집들이 선물</p> 	<p>애도와 추모의 마음 근조/추모</p> 
--	--	---	---	--	--	--

■대표 장춘화 ■031) 847-2298 ■의정부시 금오동 374-1번지 아남주상복합상가 119호